

경복궁 복원정비계획으로 구성된 식생경관의 과제

김미정* · 소현수**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박사과정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Challenges of Vegetation Landscapes Formed through the Restoration and Maintenance of Gyeongbokgung Palace

Kim, Mi-Jeong* · So, Hyun-Su**

*Doctoral Course, Graduate School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Gyeongbokgung Palace Restoration and Maintenance Plan, as well as visual records, to investigate the contextual background and challenges in the formation of the palace's vegetation landscape.

First, the plan for introducing vegetation was first established through the 『Gyeongbokgung Restoration and Maintenance Basic Plan(1994)』 and the 『Comprehensive Landscape Basic Design(1996)』. However, subsequent landscape management was limited to resolving localized issues encountered during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and architectural restoration, rather than implementing a systematic planting strategy. Second, restoration efforts relied heavily on architectural reference drawings, such as the 「Bukgwoldohyeong」 and the 「Gyeongbokgung Layout Map」, which lacked detailed landscape information. Consequently, many courtyard areas around the palace buildings lacked a planting strategy and spatial articulation and thus remained empty and unplanted. The dismantling of cloisters and walls increased the openness of exterior areas. At the same time, green zones designated for future excavation or reconstruction weakened the spatial coherence and identity of the royal garden. In areas such as Yeongjegyo, Gyeonghoeru, and Hyangwonji, the absence of seasonal planting composition, unmanaged tree growth, distorted tree forms, and park-style herbaceous planting diminished the character of the palace's landscape. Third, vegetation was minimally represented in 「Restoration Renderings」, in contrast to Kim Hak-soo's 「Bukgwoldo」 which vividly portrayed diverse, space-specific vegetation that emphasized both scenic and functional value of plantings across the palace grounds. Fourth, targeted planting strategies were developed for specific zones: for example willow trees lining the central path and boundary trees planted between Gwanghwamun and Heungnyemun. At Yeongjegyo Bridge, where fruit trees currently occupy the flowerbeds, the restoration of a symbolic willow grove has been proposed to represents the Geumcheon stream. In the Amisan Garden behind Gyotaejeon, enhancing the woodland mass is essential for directing geomantic energy flow (naemaek),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feng shui and traditional site planning. In official spaces, like Sujeongjeon, the symmetrical planting of evergreen species is appropriate for emphasizing formality and an axis. In the women's residential quarters including Jagyeongjeon, Hamhwadang, and Jipgyeongdang the introduction of flowering trees is suitable for reflecting seasonal changes and spatial intimacy. In the Donggung and royal administrative quarters (Gwolnaegaksa), vegetation may be introduced in relation to the planting arrangements of Geoncheonggung and the flower terrace at Heungbokjeon. Waterside planting around Gyeonghoeru and Hyangwonji is recommended to frame views outward toward the surrounding mountains and reinforce the enclosed, spatially contained water features.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spatially differentiated vegetation planning that reflects the functional roles and symbolic meanings of each zone within the contemporary restoration landscape of Gyeongbokgung Palace.

Key words: Bukgwoldo, Landscape Planting Plan, Royal Palace Landscape, Traditional Tree Species

† **Corresponding Author** : So, Hyun-Su,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Seoul 02504, South Korea.
Tel.: +82-2-6490-2848, E-mail : hssu@uos.ac.kr

국문초록

경복궁 복원정비계획과 시각 자료를 분석하여 식생경관의 형성 배경과 과제를 도출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복궁 복원정비 기본계획(1994)』과 『경복궁 종합조경 기본설계(1996)』를 근간으로 경복궁의 식생 도입 방향이 결정되었다. 이후 발굴조사와 전각 복원 과정에서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식생 정비가 수행되었다. 둘째, 「북궐도형」, 「경복궁 평면도」 등 조경 정보가 없는 고증 자료에 의거한 복원으로 전각 주변은 빈 마당이 많았다. 또한 행각이나 담장이 훼손된 전각 외부공간의 개방성, 발굴조사가 예정된 유보 녹지나 복원 예정지는 공원의 정체성을 손상하고 있다. 영제교 일원, 경회루지, 향원지 일대에서 인상적인 계절경관을 제공하지 못하고, 수목의 성장과 변형된 수형, 공원형 초본 식재 방식은 궁궐의 경관성을 떨어뜨렸다. 셋째, 「복원 조감도」에는 식생경관이 소극적으로 반영되었고, 김학수의 「북궐도」에서 공간별 특성을 고려한 식생이 풍성하게 표현됨으로써 식생의 경관적 가치를 보여준다. 넷째, 광화문~홍례문 마당에는 가운데 진입로 양쪽 버드나무 식재와 경계부 교목 식재가 가능하며, 현재 화단에 유실수들이 식재된 영제교에는 금천을 상징하는 버드나무림을 제안하였다. 교태전 아미산 원에는 풍수적 내맥으로서 숲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빈 마당인 수정전에는 업무공간 성격에 적절한 상록수 대식, 여성의 생활공간인 자경전·함화당·집경당에는 화교목 식재를 모색할 수 있다. 동궁과 궐내각사 영역에는 건청궁 화오와 홍복전 화계 형식의 식생 도입이 가능하다. 경회루지와 향원지는 수변 식생으로 주변 산을 향한 조망성과 수공간 위요감을 조절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에 복원정비사업으로 형성된 경복궁의 경관에 영역별 적합한 식생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궁궐 조경, 북궐도, 전통수종, 조경식재계획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법궁으로서 정치적, 역사적 상징성에 걸맞은 당대 최고의 기술과 문화가 결합된 공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임진왜란 때 화재로 전소된 후 약 250여 년간 방치되다가 고종대 재건되고, 다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역사적 혼란기를 거치며 500여 동의 전각 중 36동만 남는 대 변혁을 겪었다^[1]. 그 결과를 보여주는 1930년대와 1950년대 사진에서 전각이 있던 자리는 대부분 비어있고, 외부공간은 기하학적 형태의 잔디밭으로 구획된 근대 정원으로 변형되었다(그림 1).

1990년대 문화재관리국은 1888년 중건 당시 모습으로 경복궁을 복원하는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고^[1]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1982년 제정된 플로렌스 현장에서 역사정원(Historic

Garden)은 ‘계절의 순화’, ‘자연의 성장과 쇠퇴’,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유지하려는 예술가와 장인의 희망’ 사이에 존재하는 이들의 끊임없는 균형을 반영해야 한다고 정의하였다^[3]. 이는 유산 공간의 복원에서 건축뿐만 아니라 외부 경관, 특히 식생경관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경복궁 복원의 근거를 제공하는 「북궐도형(北闕圖形, 20세기 초)」과 「경복궁 배치도(19세기)」, 그리고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에 수록된 「경복궁 평면도(1920년경)」는 건축 평면도로서 조경과 식생에 대한 정보가 없다. 또한 1994년 처음 수립된 『경복궁 복원정비 기본계획』에 기술된 식생경관에 대한 정보는 식재를 위한 전통수목을 제시한 정도이며, 1996년 조경단독으로 작성한 『경복궁 종합조경 기본설계』^[4] 이후 전체 식생경관을 적극적으로 다룬 바 없다.

이러한 여건에서 경복궁 전각 복원을 위해 구역별 발굴조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식생경관에 대한 방향성 없이 당면



a. 조선총독부 부감(『日本地理風俗大系』, 新光社, 1930) [2]



b. 한국전쟁 직후의 경복궁(1954) [2]

그림 1. 전각이 훼손되고 변형된 경복궁의 외부공간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식재가 이루어졌다[5]. 고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의 경관과 현대적 여건을 고려한 경복궁의 식생경관이 소극적으로 접근되었다고 이해된다. 이제 조경에서 향후 지속될 경복궁의 전각 복원에 따른 경관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어있던 경복궁은 조선시대와 현대가 뒤섞인 공간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복원과 단절된 녹지, 전각 중심의 건조한 마당, 발길을 기다리는 유보지, 부족한 그늘 등으로 창덕궁이나 창경궁에서 볼 수 있는 인상적인 계절경관을 기대하기 어렵다. 경복궁의 역사적 가치와 위상에 어울리는 현대적 활용성을 고려한 식생경관의 지향점이 필요하다. 근간에 국가유산청에서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궐도(東闕圖)」를 기반으로 한 창덕궁과 창경궁과 비교하여 경복궁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미흡하다. 건축 위주의 복원이 진행되는 여건에서 경복궁의 원형경관 복원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6], 녹산의 성립 배경을 고찰하여 풍수적 내맥²⁾, 소나무림, 사슴과 관련된 경관적 의의를 도출하였다[7]. 경복궁 식생경관과 관련하여 경회루지 섬과 주변 수목 성장에 따른 경관 변화에 대응하는 정비 방향을 제안하고[8], 영제교, 경회루, 향원정 일원의 초본을 대상으로 적극적 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9]. 기존 연구의 대상은 특정 공간에 한정되며, 식생경관 전반의 계획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경복궁의 식생경관을 고증할 자료가 없다는 한계에서 본 연구는 원형 정보는 아니지만, 역사 풍속화가 혜촌(惠村) 김학수(金學洙, 1919~2009)가 그린 「북궐도(北闕圖, 1975)」³⁾에 수목이 적극적으로 표현된 사실에 착안하여 경복궁의 주요 영역별 식생경관의 문제를 진단하고자 한다. 더불어 경복궁의 식생경관이 현재 모습에 이르게 된 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식생경관 조성 관리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의 공간적 범위

현재 경복궁은 중심에 삼문삼조(三門三朝)의 궁제(宮制) 배치에 따른 공간구조를 유지하고[1], 현대공간으로서 광화문 서쪽에 국립고궁박물관, 동쪽에 방문자 주차장, 안쪽 선원전 권역에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자리한다. 고종대 건물로 근정전, 근정문, 경회루, 자경전, 사정전, 천추전, 수정전, 제수함, 집경당, 함화당, 향원정, 집옥재, 협길당, 팔우정, 건춘문, 신무문 등이 남아있으며[1], 침전 권역, 동궁 권역, 태원전 권역, 건청궁 권역, 흥복전 권역, 계조당 권역 등이 복원과 정비로



그림 2. 경복궁의 복원정비 계획

새롭게 구성되었다.

경복궁은 공간 위계에 따라 치조(治朝), 외조(外朝), 내조(內朝·연조 燕朝)로 나누거나[1] 기능에 따라 외전, 내전, 동궁, 후원, 궐내각사로 구분한다[11]. 본 연구는 공간 기능을 고려한 식생경관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전제로 하고, 현재 식생경관 분석의 의미를 지니는 영역으로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였다. 즉, 전각의 기능과 차별적인 경관성을 고려하여 진입경관으로서 외전의 광화문과 홍례문 사이 마당, 전이경관으로서 영제교 영역, 전각 중심 경관으로서 수정전과 내전의 자경전·함화당·집경당 영역, 동궁의 계조당·자선당·비현각 영역, 궐내각사의 생과방·내외소주방 영역, 그리고 화계 식생경관으로 교태전 아미산원과 수변 식생경관은 궁원(宮園)인 경회루지와 향원지로 차별화된다(그림 2).

2. 연구의 내용

1989년부터 약 7년간 궁궐에 어울리지 않는 수종의 제거와 수목 이식 작업이 진행되었다. 관련 기록에 따르면 불량 수목 226주 제거, 경내 분산 이식 216주, 구입 등 반입 식재 829주, 타 지역으로 이식 544주 등이 이루어졌다[12]. 이렇게 시작된 대대적인 수목 식재 작업으로 경복궁 식생경관의 기반이 형성된 것이다.

1990년대에 시작한 경복궁 복원정비사업은 2009년에 1차 완료하고, 2020년까지 기본계획 한번, 다섯 번의 조정이 있었다[13]. 초기 복원 정비의 방향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기에 변형된 궁궐의 원형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조경은 공간별 적합한 식재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1]. 발굴과 전각 복원으로 경관이 크게 변했지만, 이를 반영한 조경종합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⁵⁾. 이는 『덕수궁 조경정비 기본계획(2016)』, 『동궐(창덕궁) 전통경관 고증 및 조경 복원정비 종합계획 연구(2020)』, 『창경궁 복원정비 기본계획 조정 연구(2023)』와 비교된다.

본 연구는 경복궁의 정비 방향을 제시한 보고서인 『경복궁 복원정비 기본계획(1994, 문화재관리국)』, 『경복궁 종합조경 기본설계(1996, 문화재관리국)』, 『경복궁 2차 복원 기본계획 조정(2020, 문화재청)』에서 조정계획과 식재 의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현장의 식생경관이

구성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문헌 연구로 현재 식생경관의 형성 배경을 이해한 후 경복궁 현장을 방문하여 영역별 주요 식재 수종, 배치와 식재 밀도, 수목의 수형 등 현황을 기록하고, 식생경관의 기능적, 경관적 이슈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경복궁 복원정비 기본계획』에서 장기계획을 시각화하며 식생을 표현한 「복원 조감도」(그림 3)를 연구 대상 영역별로 분리하여 식생 배치 양상과 경관적 태도를 이해하고, 경복궁 현장 사진과 비교 검토하였다. 더불어 「조선총독부 박물관 유리건판」과 『사진으로 보는 경복궁(2006)』에 수록된 사진으로 과거의 식생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고증 자료는 아니지만, 김학수가 경복궁 영역별로 풍부한 식생을 묘사한 「북궐도」(그림 4)의 동일 영역을 검토함으로써 영역별 식생경관에 대한 인식과 역할을 이해하였다. 마지막으로 궁궐의 이상적인 식생경관을 대표하는 「동궐도」, 그리고 영역별 식생경관을 설명하는 사례의 고지도와 고화화를 제시하여 식생경관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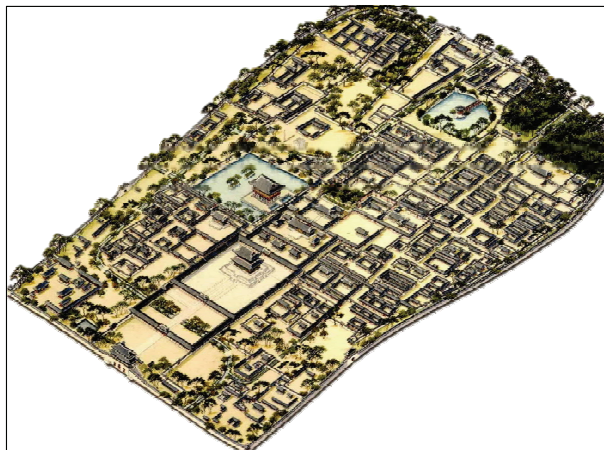


그림 3. 『경복궁 복원정비 기본계획(1994)』 「복원 조감도」[2]

III. 결과 및 고찰

1. 경복궁 복원정비계획의 식생경관

1) 『경복궁 복원정비 기본계획(1994)』[1]

최초의 경복궁 복원정비 계획에서 외조(광화문~근정문 영역), 치조, 연조(강녕전, 자경전·침전, 교태전 후원), 상원(향원지, 녹산, 현대적 활용공간)으로 구분하고, 치조는 식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교목 16종과 관목 7종을 도입 가능한 수종으로 제시하였다(표 1).



그림 4. 「북궐도(北闕圖, 1975)」 2.6mx3.6m(8폭 병풍), 국립고궁박물관 소장[2]

표 1. 「경복궁 복원정비 기본계획(1994)」의 영역별 식재 수준

영역		수종	
외조	광화문 동서쪽	소나무, 단풍, 버드, 배나무, 지피	
	근정문—홍례문	소나무, 느티, 느릅, 회화, 참나무	
	영제교 주변	배나무, 자두, 살구, 앵두	
	건춘문~근정전 행각	소나무, 느티, 회화	
	영추문~근정전 행각	소나무, 활엽교목	
	동궁지역	살구, 앵두	
	경회루 북쪽 공간	소나무, 느티, 회화, 단풍, 진달래, 철쭉	
경회루 어구 주변		자두나무, 살구나무, 앵두나무	
연조	강녕전 공간		살구, 매화, 철쭉, 목단, 작약, 지피
	아미산 공간	화계	소나무, 살구, 매화, 앵두, 철쭉, 목단, 작약
		윗단	소나무, 산들배, 철쭉
	자경전과 침전공간		살구, 매화
상원	곡수지 주변	아미산 후면	앵두, 산철쭉
		자경전 뒷편	소나무, 느티
		건물 터	잔디
	향원지 주변		소나무, 느티, 느릅
	구 민속박물관 (현 건천궁)		소나무, 느티, 느릅, 단풍, 참나무, 산사, 산목련, 진달래, 철쭉, 병꽃, 야산 지피
	녹산 수림공간		느티, 느릅, 회화, 단풍, 참나무, 산사, 산목련, 팔배, 귀룽, 진달래, 철쭉, 병꽃, 산죽, 국수
	군 주둔지 (현 태원전)		소나무, 느티, 회화, 단풍, 참나무, 팔배나무, 개암나무, 진달래, 철쭉, 병꽃, 산죽, 국수
	국립중앙박물관		소나무, 느티, 단풍, 참나무, 진달래, 철쭉, 병꽃, 산죽

궁궐의 진입과 의례 공간인 외조에는 소나무와 느티나무, 회화나무, 참나무 등 낙엽교목과 영제교 주변에 배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앵두나무 등 유실수가 제시되었다. 연조는 소나무와 살구나무, 매화나무, 앵두나무, 철쭉, 목단, 작약 등 많은 화목이 제시되었다. 상원에서 근현대기 건축물 철거 후 수목을 식재하도록 하고, 북쪽 수림과 연계되도록 참나무, 산사나무, 산목련, 팔배나무 등 자연림에 어울리는 수종을 제시하였다.

식재 위치 정보를 명시한 배식도면 없이 전통수종 제시에 머무른 한계가 있으나 경복궁 복원정비 계획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현재 식생경관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2) 『경복궁 종합조경 기본설계(1996)』[4]

1996년 역사 바로 세우기를 배경으로 한 궁제(宮制)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조경에서 경복궁의 식생과 시설물 현황 조사와 기본설계를 도출하였다. 전통 궁원 양식의 재현과 역사적 조경공간의 보전과 활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였다.

식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나무의 상록수 20종 1,270주, 낙엽수 71종 3,211주, 상록관목 10종 1,260주, 낙엽관목 34종, 3,758주 총 135종 9,499주가 생육하고 있었다. 식재 계획으로 녹음식재, 어구 주변 식재, 경관식재, 완충식재, 지피 식재로 구분한 10가지 유형이 제시되었으며(그림 5b), 「동궐도」에서 배식 패턴을 추출하여 반영하였다. 식재계획도는 공간의 성격보다는 작성의 편의를 위해 10개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구체적인 수종은 기입하지 않고 영역별 존치 수목과 보식 수목을 나누고, 상록수, 낙엽수, 화목, 잔디로 구분하였다(그림 5a). 이는 『경복궁 복원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수목을 그대로 반영한 배경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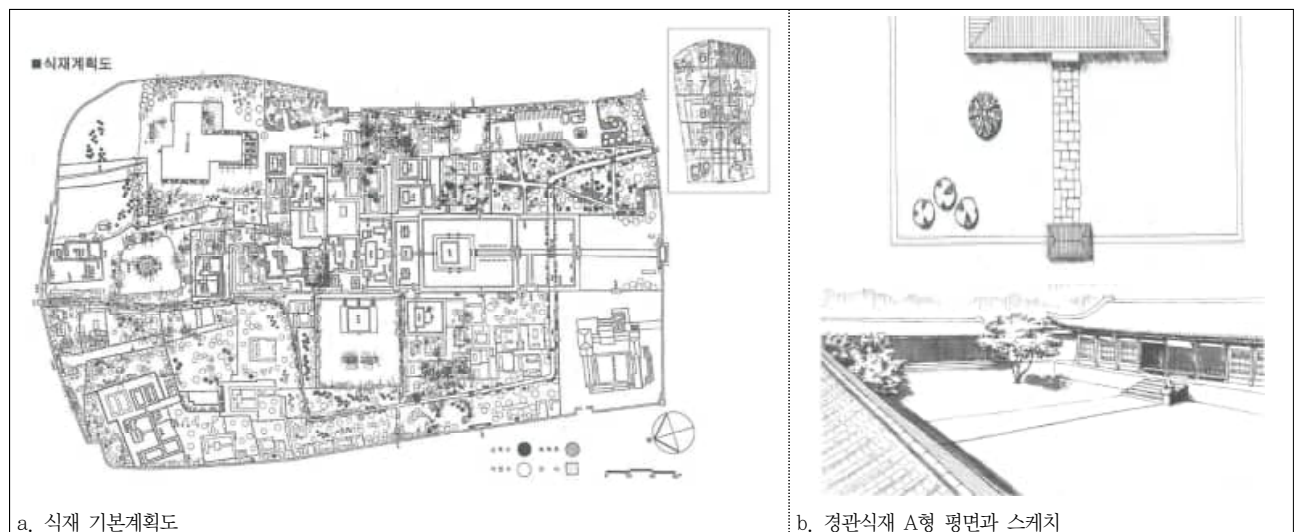


그림 5. 『경복궁 종합조경 기본설계(1996)』에 수록된 식재계획도

복원 권역은 침전 권역, 동궁 권역, 태원전 권역, 광화문 권역 및 기타 권역으로 구분하고 동궁 권역의 자선당과 비현각 주변은 공간이 협소하므로 기존 수목을 모두 외부로 이식하고, 건청궁 경내에는 식재를 지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어구 주변 수양버들은 가지 부러짐과 꽃가루 확산 등의 문제로 제한 도입한다는 내용이 있고, 광화문에서 홍례문 구역에 회화나무와 느티나무 식재가 제안되었으나 현재 반영되지 않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경복궁 조경계획을 독립적으로 다루고, 식생경관 구성에 「동궐도」를 활용한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다만, 궁궐 공간의 기능과 역사적 맥락에 기반한 식재 방향이 입체적 경관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개념적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3) 『경복궁 2차 복원정비 기본계획(조정)』

건축에서 주도한 2차 복원정비 기본계획에서 식생경관과 관련하여 전통 궁원 양식의 원형 복원과 지속적인 보존·관리 체계화를 강조하였으나, 구체적인 수목 배치나 식재 매뉴얼은 제시하지 않았다.⁶⁾ 최근 수행된 『경복궁 2차 복원사업계획 조정연구(2020)』는 주요 전각의 복원 시기와 대상을 조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1단계 대상지인 소주방 권역, 제조당 권역, 광화문 월대는 현재 복원을 마쳤고, 2단계는 수정전 권역, 선전관청·내각 권역, 영추문 권역이다. 건물 복원 및 유구 정비에 따라 경회루 권역의 경관을 저해하는 버드나무를 제거하고, 어구 주변에 소나무, 버드나무, 수양버들 식재가 제시되었다. 대비·후궁·침전·동궁 등 생활공간에 제안된 앵두나무와 살구나무는 1994년 종합정비계획에 기록된 정보를 인용한 것이며, 소나무와 앵두나무⁷⁾, 살구나무에 대한 『조선왕조실록』 정보를 통해서 궁궐 권역별 특성을 반영하였다는 시사점이 있다. 반면에 3~5단계 복원 권역에 대한 조경계획은 없다.

2. 경복궁 식생경관의 현황과 이슈

살펴본 바와 같이 전각 중심의 복원정비가 진행됨에 따라서 조경계획도 한 부분으로 다루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은 조경이 세부 영역의 기능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됨으로써 경복궁 전체 경관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복궁을 외조, 치조, 연조, 후원으로 대분류하고, 각각의 공간들을 구성하는 소공간의 특징을 반영한 식재 방식과 수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⁵⁾. 현장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식생경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궐도형」과 「경복궁 평면도」 등 건축 정보만 수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복원된 결과, 전각을 둘러싼 외부공간은 수목이 없는 ‘빈 마당’이 되었다. 집경당, 홍복전, 제조당, 비

현각 등에서 단조로운 인공경관이 연속됨으로써 여름철 관람의 편의를 떨어뜨린다(그림 6a, 6b, 6c).

둘째, 경복궁 외부공간의 장소성 결여가 보인다. 공간의 경계는 물리적 구분을 넘어서 공간 위계와 용도가 암시되며 동선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수정전, 집옥재처럼 행각이나 담장 등 경계 시설이 훼손된 채 전각만 남아 개방됨으로써 적정한 공간의 위요감을 잃었다(그림 6d, 6e). 또한 오랜 기간 발굴 조사와 복원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조성된 녹지는 기존 공간의 역사·문화적 맥락을 반영하기 보다는 유보지로 기능하거나 발굴을 피해서 수목을 옮겨 심어 식생경관이 변화되었다(그림 6f). 이러한 복원 예정지는 주변 수림과 부조화되고 동선을 인위적으로 변형하고 있다.

셋째, 유산경관에 걸맞는 인상적인 장면 연출이 미흡하다. 경복궁 방문자가 처음 마주하는 영제교 일원에는 『경복궁 복원정비 기본계획(1994)』에서 제안된 매화, 살구, 앵두 등 유실수가 식재되었다. 하지만, 넓은 마당의 규모와 금천(禁川)의 상징성과 부합하는 진입경관을 구현하지 못한다(그림 6g). 이는 창경궁 금천에 식재된 수종을 선택했지만 해당 공간의 구성에는 적절하지 못한 셈이다. 경회루지 호안과 향원정 사면 녹지와 호안의 식생경관은 궁궐 수공간의 이미지로 역할하기에 미약하다(그림 6h). 또한 어구 경계부 공원형 초본 군식은 관람 환경 개선 목적으로 도입된 현대적 조경이 역사정원의 정체성을 흐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6i).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수목 성장에 따른 경관 변화의 문제이다. 밀식, 차폐, 수형 변화 등 수목의 심미성이 떨어지는 양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태원전 권역 오른편 화계 상부 높은 밀도의 소나무림이 시야를 막고(그림 6j). 경회루지 북쪽 담장 밖 장송 군락은 돌출된 스카이라인을 만들어 궁원 경관과 부조화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그림 6k). 또한 경회루지 호안의 늘어지는 가지가 중경의 수면과 원경을 향한 시선을 막고(그림 6l), 남쪽 호안의 수양버들나무는 상부 가지가 소실되었다(그림 6m). 향원지 동쪽 호안의 소나무는 수면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져 균형감을 잃었다(그림 6n). 건청궁 권역 화오에 독립 식재된 매화나무 수형이 이질적이다(그림 6o).

이러한 현황의 문제점은 경복궁 복원 및 조성 과정에서 식생경관에 대한 계획과 해석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식생을 유산 경관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여 공간 기능 및 경관에 부합하는 적극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전각 중심의 인공경관



a. 집경당 마당



b. 홍복전 마당



c. 계조당 전면 마당

궁궐 외부공간의 장소성 결여



d. 영역성이 사라진 수정전



e. 넓게 개방된 집옥재 앞마당



f. 미복원지의 소나무숲

인상적 장면 연출 미흡



g. 영제교 주변 식재



h. 향원지 호안 식생경관



i. 어구 경계부 공원형 초본식재

수목 성장에 따른 경관 변화



j. 태원전 화계 상단부 수림



k. 경회루 북쪽 호안 식생



l. 조망을 막는 수양벚나무 가지



m. 상부 가지가 소실된 수양벚나무



n. 과도하게 기울어진 향원지 호안 소나무



o. 이질적 수형의 건청궁 매화나무 독립수

그림 6. 경복궁 식생경관의 현황과 이슈

3. 경복궁의 식생경관 분석

1) 진입경관 광화문~홍례문 마당

광화문에서 홍례문 사이의 앞마당은 매·수표와 진입이 이루어지는 넓은 포장 공간이다(그림 7a). 이곳은 수목이 없이 건조하고 비워진 개방 경관이 형성되었다. 「복원 조감도」에는 광화문 양쪽 궁장 주변에 교목을 배치하였다(그림 7c). 「동궐도」에서 경복궁 진입 방식과 차이는 있으나 돈화문 주변 활엽수림을 확인할 수 있으며(그림 7d), 실제 창덕궁 돈화문 안쪽

에 삼정승을 상징하는 회화나무 노거수가 현존한다(그림 7e). 경희궁을 그린 「화성행궁도」와 「서궐도안」에서도 마당 경계부에 활엽수가 식재되었다(그림 7f, 7g). 김학수의 「북궐도」는 광화문과 홍례문 마당 경계부를 따라서 상록수, 버드나무와 활엽수, 화목을 밀도 있게 배치하여 풍부한 녹음이 있는 이상적 경관을 제시하였다(그림 7b). 또한 영조 23년(1747), 「친림광화문내근정전정시시도(親臨光化門內勤政殿庭試時圖)」에서 광화문에서 영제교까지 진입로 양쪽에 버드나무와 활엽수가 열식된 모습이 묘사되었다(그림 7h). 이들 사례로부터 식









현황	 <p>a. 포장면으로 개방된 광화문~홍례문 마당</p>		
북궐도	 <p>b. 「북궐도」: 경계부에 적극적으로 도입된 식생</p>		
참조 자료	 <p>c. 「북궐도」: 광화문 양쪽의 수목</p>	 <p>d. 「동궐도」: 돈화문 주변 식생 군락</p>	 <p>e. 창덕궁 돈화문 안쪽 회화나무</p>
	 <p>f. 「화성행궁도」</p>	 <p>g. 「서궐도안」</p>	 <p>h. 「친림광화문내근정전정시시도」 일부</p>

그림 7. 광화문~홍례문 마당의 시각 자료

생이 부재한 현황의 개선 여지를 이해할 수 있다.

향후 공간의 위계와 유산경관의 위요감 형성 등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한 전이공간으로서 식생경관 구성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2) 전이경관-영제교 일원

현재 흥례문을 통과하여 마주하는 영제교 일원은 어구 양쪽 긴 화단에 식재된 유실수 위주의 식생경관이다. 하지만, 공간 규모에 비해서 교목의 수고가 낮고 수형이 우수하지 않으며,

하부에는 정원형 지피가 식재되었다(그림 8a, 8b). 반면에 「한양도성도」와 근대 사진에서 파악할 수 있는 영제교 주변 식생은 버드나무류이다(그림 8h, 8i). 「동궐도」와 「경희궁도」 어구 주변에도 버드나무 군락이 표현되었다(그림 8e, 8f). 이는 물길과 연계한 수변 식생경관의 특성으로서 장소성을 만든다. 그런데 「동궐도」의 창경궁 옥천교 주변 이미지는 현재 영제교 식생과 유사하다(그림 8g). 1994년 『경복궁 복원정비 기본계획』에서 유실수를 제시한 근거로 작용했을 것이다.

「복원 조감도」에는 어구 양쪽 화단에 교목이 표현되었으며




현황	 <p>a. 흥례문에서 바라본 영제교 일원의 식생경관</p>	 <p>b. 영제교 어구 주변 식생경관</p>	
북궐도	 <p>c. 「북궐도」: 버드나무 단일 수종으로 산식된 식생경관</p>		
참조 자료	 <p>d. 「복원 조감도」: 화단에 식재된 수목들</p>	 <p>e. 「동궐도」: 창덕궁 금천교 주변 식생</p>	 <p>f. 「경희궁도」: 금천교 주변 식생</p>
	 <p>g. 「동궐도」: 창경궁 옥천교 주변 식생</p>	 <p>h. 「한양도성도」 일부</p>	 <p>i. 영제교 주변 버드나무[15]</p>

그림 8. 영제교 일원의 시각 자료

(그림 8d), 「북궐도」에는 어구를 따라서 조형적인 화단 없이 연속성 있게 높은 수고의 버드나무 단일수종으로 마당을 꽉 채운 식생경관이 묘사되었다(그림 8c). 수로 환경에 적합한 수종으로 장소성을 만족시키며 인상적인 진입경관을 형성한다. 영제교와 관람로가 만드는 직선축과 교차하는 장방형 화단으로 형성되는 기하학적 이미지처럼 디자인 측면에서 수평선과 수직선의 의도된 연출은 공간의 균형감을 조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16]. 전이경관으로서 영제교 일원의 장소성을 회복하고 시각적 완결성을 갖출 수 있는 적극적 식생 개선이 필요하다.

3) 전각 중심 경관 - 수정전/ 자경전·함화당·집경당

중건 당시 수정전 외곽에 행각이 있었으나, 현재 수정전만 남아 넓은 면적이 개방되어 공간감이 상실되었으며, 전각 앞 동편에 기울어진 소나무 1주가 있다(그림 9a). 「북원 조감도」의 마당도 비어있지만(그림 9c), 「북궐도」에는 담장으로 구획된 마당마다 여러 종류의 수목을 대식하였다. 특히 전각 동서쪽에 측백나무로 보이는 상록수가 대식되었는데(그림 9b), 이것은 「동궐도」 서쪽 규장각이나 선원전 마당의 식재 패턴과 유사하다(그림 9d). 공간에서 선형의 수직 요소는 시선을 집









현황		북궐도	
참조 자료			
현황		북궐도	
참조 자료			

그림 9. 수정전과 자경전·함화당·집경당 영역의 시각 자료

증시키며 주위에 상징적 영역을 형성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업무나 의례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한 식생경관이 의도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궁중 여성들의 생활공간인 자경전·함화당·집경당 영역에서 현재 자미당 터에 살구나무 6주가 있고, 함화당 협문 주변

에 괴석과 대형 관목이 식재되었으나, 대부분 전각 주변은 비워졌다(그림 9e). 「복원 조감도」에서 자미당 후원과 만경전 주변 소극적 식재가 반영되었다(그림 9g). 하지만 「북궐도」는 다른 영역보다 화교목 중심의 식생이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계절경관을 강조하였으며, 「동궐도」의 낙선재 터 일원처럼(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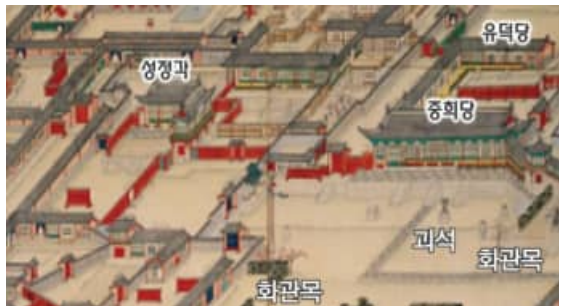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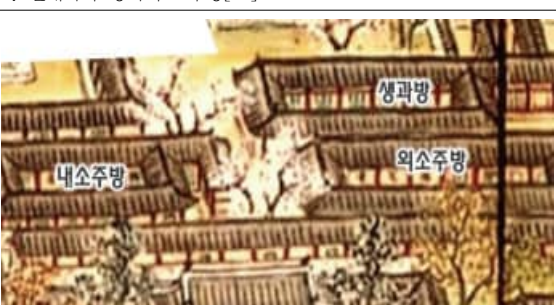

현황	 <p>a. 동궁 영역의 자선당 앞마당</p>		 <p>b. 「복원 조감도」: 동궁 영역</p>
북궐도	 <p>c. 「북궐도」: 동궁 영역</p>	참조 자료	 <p>d. 「동궐도」: 동궁 영역</p>
현황	 <p>e. 궐내각사 영역의 소주방[11]</p>		 <p>f. 「복원 조감도」: 비워진 전각 외부공간</p>
북궐도	 <p>g. 「북궐도」: 소주방 전각 사이의 식생</p>	참조 자료	 <p>h. 「동궐도」: 비워진 전각 외부공간</p>

그림 10. 동궁과 궐내각사 영역의 시각 자료

9h) 유실수로 보이는 화교목을 담장 앞에 열식하였다(그림 9f). 이는 여성들의 공간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되며, 식재가 장소성을 표현하는 수단임을 시사한다.

4) 전각 중심 경관 - 동궁 영역/ 궐내각사 영역

근정전 동쪽 동궁 영역은 복원이 완료되어 자선당·비현각·계조당과 수목이 없는 마당으로 구성되어 건축적 인공성이 강하다(그림 10a), 「복원 조감도」에서는 전각 주변에 식생이 반영되지 않은 반면(그림 10b), 「북궐도」는 비현각과 계조당 담장 밖 수목을 그렸고, 거주 공간인 자선당 좌우에 교목을 대식하여 건축적 경직성을 완화하였다(그림 10c). 이는 「동궐도」

에서 성정각보다 중희당 영역의 규모가 크고 장식적인 것과 일맥상통한다(그림 10d). 전각의 용도와 위계를 반영한 식재 전략은 단조로운 마당에 기능적·상징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건축물이 밀집된 궐내각사 영역 중에서 동궁과 자경전 사이에 위치한 내·외소주방과 생과방은 좁은 공간에 집약적으로 건물이 배치된 건축적 공간이다(그림 10e). 「복원 조감도」는 식생이 배제되었고(그림 10f), 「동궐도」의 소주방 역시 유사하다(그림 10h). 「북궐도」에서는 좁은 전각 앞마당은 식생이 없으나 동선이 제공되는 담장을 따라 활엽수를 적극 배치하였다(그림 10g). 이는 밀도가 높은 건축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현황		참조 자료	
			
북궐도			
			

그림 11. 교태전 아미산원의 시각 자료

궁궐 식생경관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6년 기본설계에서는 식재를 배제했었으나, 2007년 복원된 건청궁에 화오를 조성하여 왕실 생활공간에 적합한 다채로운 식생경관을 확보하고, 2018년 복원한 흥복전에 단정한 화계를 조성한 사례가 있다. 이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전각의 용도와 역사적 맥락에 부합하는 적극적 식생 도입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5) 화계 식생경관 - 교태전 아미산원

교태전 후원은 고종대 『경복궁 영건일기(營建日記, 1865~1868)』에 유일한 조경 기록일 정도로 경관성이 높은 곳이다. 고종대 왕비의 침전으로 중건되며 석축을 쌓고 화계를 조성하

였는데 수종은 명확하지 않다.⁸⁾ 시각 자료에서 구체적 수종은 파악할 수 없고, 낮은 단에 심어진 관목과 밀식된 상단의 배후림만 확인된다(그림 11e, 11f). 「북궐도」에는 낮은 화목과 관목으로 섬세하게 표현된 「동궐도」의 대조전 후원보다 식생 밀도가 더 높다(그림 11g). 대조전 화계 뒤쪽 자연수림과 같이 교태전 화계 후면 구릉지의 수림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그림 11h). 이것은 근대에 촬영된 사진에서도 확인되는데(그림 11b, 11d), 현재와 다른 모습이다. 이 곳 ‘아미사(蛾眉砂)’라고 불리던 언덕은 고지도에 빠지지 않고 표현되는 경복궁의 풍수에서 중요한 내맥이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데⁹⁾, 이는 교태전 후원이 단순한 화계를 넘어 풍수 지형에 기반한 상징성을 내포한 장소임을 의미한다.

현황		북궐도	
	a. 밀도가 높은 섬의 소나무림(2020년)		b. 「북궐도」: 경회루지 수변의 밀도 높은 식생
참조 자료		참조 자료	
	c. 정비한 섬의 소나무림(2025년 현재)		d. 「북원 조감도」: 경회루지 수변의 식생 분포
현황		북궐도	
	e. 향원지(2014년)		f. 「북궐도」: 향원지 수변 식생
참조 자료		참조 자료	
	g. 향원지(2025년 현재)		h. 「북원 조감도」: 향원지 수변 식생 분포

그림 12. 경회루지와 향원지의 시각 자료

화계의 식재 여건상 근대 사진에서 보이는 대형 반송은 현재 없다. 동일한 맥락에서 2020년 좁은 화계에서 과도하게 성장하여 안전에 위협이 예측되는 소나무를 제거하였다. 더불어 화목과 초본을 보식하고 상단에는 회화나무, 느티나무, 말채나무 등으로 정비하였다. 이렇게 교태전 아미산원은 비교적 장소성이 잘 보존된 공간이다. 다만, 잡초가 공존하고 초본의 개화 시기가 지난 이후 경관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 관리 투입과 함께 배후 수림의 경관적 보완도 고려되어야겠다.

6) 수변 식생경관 - 경회루지/ 향원지

경회루와 지당은 태종 12년(1412)에 조성된 이후¹⁰⁾ 연회·사신 접대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복원 조감도」와 「북궐도」 모두 중도에 소나무가 표현되었다. 과거 경회루지의 수목이 북악산과 인왕산 조망을 차폐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호안 화계의 대교목 제거와 만세산의 소나무 수고를 8m 내외로 관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8]. 현재 섬의 소나무 키를 줄이고, 수관의 밀도를 낮춘 정비가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12a, 12c). 「북궐도」에서 호안에 소나무와 활엽수 혼효림을 밀도 높게 표현된 수변경관을 보여준다(그림 12b).

『경복궁 향원정 보수공사 해체실측 및 수리보고서』에서 1885년 향원정이 조성되기 이전 연못과 남쪽에 수전(水田)이 있었다고 고증하였다[19]. 한국전쟁 중 취향교가 소실되고, 1953년 남쪽에 목교로 재건되었다가 2021년 아치형 목교로 복원되었다. 이때 수변 수목의 전정과 간벌, 관목과 초본 식재가 병행되었다. 석축 구조물 훼손 우려가 있는 수목을 제거함으로써 밀도가 조절되었으나 수변 경관의 차별성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향원정 보수로 제거되었던 섬의 식생경관이 모호하다(그림 12e, 12g).

「복원 조감도」와 「북궐도」에서 향원지 호안에 수목이 풍부하게 표현되었으나, 식생 배치 방식에 차이가 있다. 「복원 조감도」는 명확히 구획된 동선을 유지하고 연못 경계부에 교목을 집중 배열한 반면, 「북궐도」는 넓은 면적에 산식되었다(그림 12h, 12f). 또한 건청궁 앞쪽이 차폐되어 왕실 거주자의 영역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북궐도」에서 경회루지와 향원지 수변에 숲을 두어 수면을 향한 위요감과 공간감이 강조된다.

IV. 결론

경복궁 복원정비계획과 시각 자료 분석으로 식생경관의 형성 배경과 현장의 이슈를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중 훼손되어 비워진 경복궁은 1994년 『경복궁 복원정비 기본계획』과 1996년 『경복궁 종합

조경 기본설계』를 근간으로 식생 도입 방향이 결정되었다. 건축이 주도한 긴 시간의 발굴조사와 전각 복원으로 외부공간이 크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전체 영역을 대상으로 한 조경종합정비계획 없이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식생 정비 위주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둘째, 경복궁은 「북궐도형」, 「경복궁 평면도」 등 조경 정보가 없는 고증 자료에 의거한 복원 결과 ‘빈 마당’의 단조로운 인공경관이 많았다. 이는 방문자 편의와 경관 체험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한 행각이나 담장이 훼손된 전각의 개방성, 발굴조사가 예정된 유보 녹지나 복원 예정지는 궁원의 정체성을 손상시키고 있다. 경복궁의 대표적 조경공간인 영제교 일원, 경회루지, 향원지 일대는 인상적인 계절경관을 연출하지 못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수목의 성장, 노화로 변형된 수목의 수형, 그리고 공원형 초본 식재 방식은 궁궐의 경관성을 떨어뜨렸다.

셋째, 경복궁의 식생경관이 표현된 시각 자료로서 「복원 조감도」는 소극적 인식을 보여준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처음 소개한 김학수의 「북궐도」는 고증 자료가 아니지만 공간별 특성을 고려한 식생을 표현함으로써 수목과 녹지가 경복궁의 경관적 위상을 높이는 잠재력을 지닌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넷째, 「동궐도」와 고회화 사례로 경복궁 영역별 식재 방향을 고찰하였다. 진입경관 대상인 광화문~홍례문 마당에는 가운데 진입로 양쪽 버드나무 식재, 경계부 교목 식재가 가능하다. 1994년 보고서에서 창경궁 금천교와 동일한 유실수 식재를 제시함으로써 영제교 일원에 화단을 조성하고 다양한 유실수가 식재되었다. 그러나 영제교 옆 능수버들 사진과 「한양도성도」에서 창덕궁처럼 금천의 장소성을 보여주는 버드나무림이 표현되었다. 또한 교태전 아미산원의 배후림은 풍수적 내맥으로서 숲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수정전과 자경전·함화당·집경당 앞마당에는 수목이 없지만, 업무와 의례공간에는 상록수 대식, 여성의 생활공간에는 화교목 식재를 모색할 수 있다. 동궁과 궐내각사 영역에는 건청궁 화오와 홍복전 화계 사례와 같이 적극적 식생 도입이 가능하다. 경회루지와 향원지는 수변 식생으로 주변 산을 향한 조망성과 수공간의 위요감을 조절할 수 있다.

경복궁의 경관은 현대의 복원정비사업으로 만들어진 결과이며, 다가올 미래도 마찬가지이다. 연구로 경복궁 조경계획에 의한 공간별 식생과 시각 자료에 표현된 경관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제까지 소극적 위치에 있던 조경은 관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유산의 향유와 가치 창출 전략으로서 경복궁의 경관을 정교하게 다듬고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식생경관의 방향은 한정된 자료를 토대로 예시한 것이므로 심도있는 조경종합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한다는 점을 설득하는데 의의를 둔다.

REFERENCES

- 주 1) 『경복궁 복원정비 기본계획(1994)』에서 남은 건물이 40동, 857간이라고 명시하였으나, 현대에 복원되거나 건축된 광화문, 영추문, 만춘전, 하향정이 포함되었다.
- 주 2) 종산(宗山)에서 내려온 산줄기를 뜻하며, 내용으로 부르기도 하는 풍수적 개념이다. 녹산은 아미산과 함께 경복궁 내부로 관입한 산줄기 중 하나이다[7].
- 주 3) 김학수가 경복궁 관련 도면 및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고종대 중건 당시의 경복궁을 추정하여 부감법으로 광화문에서 북악산 방향을 그린 8폭(2.6x3.6m) 병풍 그림이다[2]. 1975년 12월 신문화관 ‘옛 서울 그림展’에 경희궁전도, 종묘대제 등의 그림과 함께 전시되었다[10].
- 주 4) 경복궁 2차 복원기본계획과 조정 작업으로, 2008년 경복궁 복원기본계획, 2011년 경복궁 2차 복원기본계획(조정), 2015년 경복궁 2차 복원기본계획(조정 1차), 2017년 경복궁 2차 복원기본계획(조정 2차), 2018년 경복궁 2차 복원기본계획(조정 3차), 2020년 경복궁 2차 복원기본계획 조정 용역이 있다[13].
- 주 5) 경복궁 식생경관은 전각 복원 과정에서 여러 구역이 발굴되고, 박물관 등으로 전용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식재 방식이 공존하게 되었고, 4개의 궁궐 중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식재 형태를 띠고 있다[5].
- 주 6) 조정계획은 ‘전통 궁원양식의 원형복원’, ‘시간 변화를 고려한 시각적 개방성 확보’,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이용 효율성 도모’, ‘지속적인 보존·관리의 체계화, 전문화’를 제시하였다[14].
- 주 7) 2020년 보고서에 “해조가 경복궁 소나무 숲에 많이 모여 등지를 틀다...” 숙종25년 7월 5일 임신 3번째 기사와 “문종은 앵두나무를 배양하여 손수 뿌리에 물을 주고...” 중종5년 3월 17일 임신 1번째 기사를 토대로 수목을 고증하였다[13].
- 주 8) 『경복궁 영건일기』 병인년(1866, 고종3) 10월 5일 “교태전 뒤의 아미사 동서남 3면에 3층으로 석축을 만들어 사초(莎草)를 입혔고, 아래쪽 2층에는 꽃과 과일나무를 심었다”[17].
- 주 9) 『경복궁 영건일기』 을축년(1865, 고종2) 5월 2일 “상원 담장 밖의 세기슭은 하나는 신무문의 후록(後麓)이고, 하나는 교태전의 후록이며, 하나는 문소전의 후록으로...”[17].
- 주 10) “新作大樓于景福宮西隅, 命工曹判書朴子青董之. 制度宏壯敵鄣, 又鑿池四周焉. 宮之西北, 本有小樓, 太祖所創也. 上以爲隘, 命改營. 『태종실록』태종12년 4월 2일 2번째 기사[18].
- [1] 문화재관리국 궁원관리과(1994). 경복궁 복원정비 기본계획.
- [2] 김종수, 박황희 외(2006). 사진으로 보는 경복궁. 문화재청.
- [3] 권용찬(2008). 역사적 정원(플로렌스 현장, 1981). 한국건축역사학회지 17(2) : 113-120.
- [4] 경희대학교 부설 조경계획연구소(1996). 경복궁 종합조경 기본설계. 문화재관리국.
- [5] 이위수, 김태식, 이원호, 장미아(2008). 사적지조경 실태와 과제 I : 궁궐 식재 정비방안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 [6] 안계복, 이원호(2014). 조선시대 궁궐정원의 원형 경관 복원을 위한 제안.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3): 10-20.
- [7] 이종근, 소현수(2020). 경복궁 녹산(鹿山)의 성립과 경관적 의의.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8(4): 1-11.
- [8] 김충식, 정슬기(2018). 경복궁 경회루 권역의 식생경관 원형과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6(6): 17-25.
- [9] 윤옥란(2022). 경복궁 전통공간의 초본(草本) 식생 경관.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0] 『월간 공간』 홈페이지(<https://vmospace.com/archive>).
- [11]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
- [12] (재)삼성건축사사무소, 삼경이앤씨(2007). 경복궁 변천사(상), 경복궁 변천과정 및 지형분석 학술조사 연구용역. 문화재청.
- [13]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2020). 경복궁 2차 복원 기본계획 조정용역. 문화재청 공능유적본부.
- [14] (재)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2008). 경복궁 복원기본계획 보고서. 문화재청.
- [15] 국가유산 지식이음. 조선고적도보. (<https://portal.nrich.go.kr/kor/historyinfoList.do?menuIdx=616>).
- [16] 이한성, 김진용, 오현경(2000). 두 개의 수평선과 두 개의 수직선 의한 면의 선호비례 연구. 디자인학연구 39 : 155-162.
- [17] 서울역사편찬원. 국역 경복궁영건일기(<https://history.seoul.go.kr/archive/ebook/>).
- [18]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
- [19] 희우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재)(2022). 경복궁 향원정 보수공사 해체 실측 및 수리보고서. 문화재청 공능유적본부.

원 고 점 수 일: 2025년 6월 18일
심 사 일: 2025년 6월 20일 (1차)
게 재 확 정 일: 2025년 6월 20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